

“쇼미더 목포 9味” MZ세대 취향저격 ‘맛’ 찾는다

시, 젊은층 공략할 맛 발굴위해 미식페스타·쇼미더9미 등 개최
청년 창업가 위한 맞춤형 레시피 교육도... ‘맛의 도시’ 자리매김

목포시가 젊은 층을 공략할 목포의 맛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의 맛’ 시책의 일환으로 목포의 대표 맛인 9미(味)의 브랜드화에 노력해온 시는 더 나아가 ‘청년이 좋아할 맛,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목포시는 민선8기 들어 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에 필수적인

레시피 브랜드화 전략과 MZ세대 입맛을 겨냥한 맞춤형 레시피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기존 음식행사의 틀을 깨고 미식의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음식축제인 목포미식페스타를 개최해 목포의 맛을 주제로 한 공연, 푸드아트 퍼포먼스, 토크쇼 등을 펼쳐 목포의 맛을 색다르게 해석했다.
목포항구축제에서도 ‘목포 맛보기’의 일환으로 ‘쇼미더9미’를 열고 음식을 전공하는 지역 고등학교

생들이 참가해 기존의 9미 음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9미를 홍보하고 MZ세대의 입맛과 취향을 공략할 레시피 발굴을 위해 ‘목포9미푸드콘테스트’를 열었는데 많은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져 9미와 목포 맛의 인기를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의 대표 맛인 9미로 청년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레시피를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들도 좋아하는 맛을 브랜드화해 목포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박홍률(가운데) 목포시장이 목포9미 푸드콘테스트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쌀·생필품·장학금...이웃사랑 꽃피는 연말

목포시 연산·삼학·상동, 홀몸어르신·복지시설에 온정 줄이어

연말을 맞아 목포시 연산동, 상동, 삼학동에서 취약계층과의 온정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상동에서는 국공립 라송5차어린이집(원장 김혜원)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생필품 20세트(100만원 상당)를 최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사진〉 이어 목포제일내과병원(원장 이기운) 제일사랑나

눔봉사단이 백미 70포, 이불 10채(300만원 상당) 위 기기구,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연산동에서는 목포동문교회(목사 김병기)가 지난 20일 백미 10kg 30포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삼학동에서는 목포 출신 트로트 가수 은정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삼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

소득층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자선콘서트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삼학동, 연동에 거주하는 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전달했다.
은정은 자선콘서트의 수익금으로 경로당에 쌀을 전달하거나 청소년에게 교복구입비·장학금 전달, 컴퓨터 지원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은정은 “지역에서 보내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과 재능기부로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완도 내년 예산 6406억원...민생 살리기 주력

올해보다 912억 원 증가...내년초 조기 집행해 경제 유발 효과 유도

완도군이 2023년도 본예산이 640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494억보다 912억(16.6%)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6237억(16.6%)으로 889억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259억 ▲세외수입 125억 ▲교부세 3,068억 ▲교부금 81억 ▲국도비 보조금 2,319억 ▲내부 거래 수입 382억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22억(15.4%)이 증가한 169억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최근 높아진 군민 관심 분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 100억을 편성해 도서지역 가뭄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단단한 군민 자치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80억 증가한 1066억을 편성하였으며, 연초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선순환 경제 유발 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급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31억) ▲노화 넓도 급수시설 공사

(15억)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12억) ▲조업선단 전용 부두 보수(10억) ▲노소보 생활권 연도교 건설 사업(10억) 등이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예산의 25%인 1567억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1365억(21%), 환경 718억(11%)이 뒤를 이었다.
안전재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112억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 복지시설에 나눔숲

군, 이용자 정서 안정 도모

무안군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했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읍에 소재한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나눔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추진됐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쉼터를 조성해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내 방치된 유휴공간 1042㎡에 교목 76주, 관목 2045



무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나눔숲.

주, 초화류 1660본, 지피식물 265.5㎡ 등을 식재해 숲을 조성했다.
이곳은 향후 시설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산림체험활동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며 방문객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휴식을 즐길 수 있

는 공간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내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추후 공모사업 확보에 노력해 사회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10억원 지급

김 양식어장 ha 당 106만원...전년보다 31.31ha 늘어 966.69ha

해남군이 친환경 인증지구 75여가에 10억 5745만원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금은 유기수산물 생산을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자 지급된다.
친환경 김 양식어장 ha 당 106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인증면적은 966.69ha로, 지난해보다 31.31ha 증가했다.
황산면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을 생산하는 5개 어촌계는 2014년 12월 신흥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한데 이어 산소, 한자, 징의, 성산어촌계도 연이어 유기수산물 인증

을 받았다.
해남군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증수수료를 비롯해 친환경 김양식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지주목, 로프 등 친환경 감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황산면 유기인증 김은 지난해 2708 t을 생산해 37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김 생산 어가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배추 150t 캐나다 수출길



지난 21일 화원면 지중해영농조합법인에서 해남배추의 캐나다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군, 켈거리 첫 수출 선적식

해남군이 최근 화원면 지중해영농조합법인에서 캐나다 수출을 위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엔 선적된 배추 물량은 18 t으로, 앞으로 150 t의 해남배추가 캐나다 수출길에 오른다.
이번 배추를 수출한 지중해영농조합법인은 금년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수출전문단지로 지정된 법인으로 매년 3000여 t의 해남배추, 양배추, 양파 등 해남 신선 농산물을 동남아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번 캐나다 수출은 수출업체인 지엔티웨이사가 캐나다 켈거리의 A-MART와 배추 수출계약을 추진하면서 성사되었다.
해남배추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A-MART에서 해남배추 공급을 요청했고 다년간 배추 수출로 노하우가 있는 지중해영농조합법인이 공급을 맡

게 됐다.
앞서 지난 11월 캐나다 켈거리로 보낸 샘플 배추가 소비자의 높은 호응속에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해남배추 150 t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국내 배추가격이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을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수출선적식에는 지중해 영농조합원들을 비롯해 수출업체인 지엔티웨이 관계자, 해남군의 회 이석욱의원과 해남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배추 캐나다 첫 수출을 기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배추가격 하락으로 국내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캐나다 수출길이 새롭게 열려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해남 농산물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농식품 유통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농정업, 식량·원에 업무, 농식품유통 3개 부문 선정

영광군이 전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쌀 판매 및 브랜드 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인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영광군은 2022년 전라남도에서 평가한 3개 농업분야 농정업, 식량·원에 업무, 농식품유통 업무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농업 일등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아울러, 선진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군, 식량·원에 업무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군,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6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은 각 분야별 적극적인 동참과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과 관계자 덕분이며, 앞으로도 농식품유통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